



동강대 작업치료과, 장애인 재활활동 지원

동강대학교가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

동강대 작업치료과(학과장 배원진)는 최근 광주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작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난 3월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와 손 기능 평가 등을 실시하며 맞춤형 재활 활동을 돕고 있다.

박업지 작업치료과 교수는 "장애인 뿐 아니라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입학, 나주 등 요양원에서 인지기능 평가를 활용한 봉사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 작업치료과는 광주 지역에서 유일한 3년제 작업치료 학위과정을 운영 중이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허증을 취득하면 △성인/노인 △아동 △국립정신병원 및 신경정신과 △지역사회 등에서 일할 수 있다. 동강대 작업치료과는 '제50회 직업치료사 국가시험'에서 91.6% 합격률을 기록했다. 김혜인 기자



KT·조선대 '유학생 조기 정착 업무협약'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지난 12일 조선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조선대학교 본관 청춘어룸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철 KT 전남전북고객본부장, 김장수 KT 광주지사장,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위한 편의 제공과 외국인 우수인재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 지역 대학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이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6월 기준 약 4000명으로, 연간 2400명의 유학생이 광주 지역으로 입국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 초기 겪는 통신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학생의 핸드폰 등 무선이동통신 개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소영 기자



광산소방서, 대형공장 소방안전 컨설팅

광주광산소방서는 봄철 화재 안전 대책으

로 대형공장 화재위험 요인 제거 등 현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안전 기준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소방 제공



북부경찰 용봉지구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광주북부경찰용봉지구대는 지난 12

일 북구 용주초등학교에서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 북부경찰 제공



광주도시공사, 화순문화관광재단과 MOU

광주도시공사와 화순문화재단은 지난 12일 사회적 책임 실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14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으로 광주와 화순의 다양한 상호협력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굴, 지역 활성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책임 이행 위한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 공유·발굴 추진 △사회공헌활동 추진사업 및 관련업무전반 인력·정보 교류 활성화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정민근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와 화순군이 상호 협업을 통한 상생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간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센트럴윤길중안과-한국알콘 업무협약

센트럴윤길중안과는 지난 9일 안과전문 기업인 한국알콘과 디지털 안과 수술 환경 구축 및 의료진 양성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14일 센트럴윤길중안과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은 윤길중 대표 원장과 알콘 북아시아 서지컬 사업부 총괄 최준호 대표를 비롯해 병원 및 한국알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알콘 비전 스위트(Alcon Vision Suite)'를 이용한 디지털 안과 수술 환경을 구축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안과 수술 전문 의료진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알콘 비전 스위트는 임상 진단기기를 비롯한 디지털 수술 장비와 높은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통합해 안과 의료진을 지원하는 에코시스템이다. 의료진이 백내장 및 굴절 환자에게 더 나은 수술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수술 흐름과 향상된 정확도로 수술 과정 전반을 연결한다. 노병하 기자



광주TP, 양자정보기술 전문가 세미나 개최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최근 지역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양자기술이 가져올 미래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이번 세미나는 지역 내외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양자정보기술과 광주지역 주력산업인 광산업 기반기술을 연계한 새로운 가치사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이순철 양자기술단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양자선도기업인 SK텔레콤, ㈜우리로, GQT코리아를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한국광기술원, 조선대학교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은 자문위원회를 진행해 광주의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 발굴, 산업트렌드 대응 및 산업 확장방안 전략 등을 논의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조달청, 우수업체 '디자인기린' 방문

광주지방조달청은 최근 민생현장 소통을 위해 광주시 평동산단에 소재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인 주식회사 '디자인기린'을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디자인기린은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금속재패널과 특수지방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진충격에 견딜 수 있는 금속재 내진패널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지역 내 중·고등학교 등 다수 기관에 설치돼 재난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생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평동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에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안내했다.

김종열 광주지방조달청장은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개선하고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마마무 솔라 '컬러스' 발매 기념 전시

그룹 '마마무' 솔라(사진)가 솔로 미니 2집 '컬러스(COLOURS)' 발매를 기념하는 전시를 연다.

14일 소속사 알비더블유(RBW)에 따르면, 솔라는 오는 27일부터 5월7일까지 서울 강동구 4LOG에서 '솔라(Solar) 2nd 미니앨범 [컬러스]: 디이그지비트(the exhibit)'를 펼친다.

이번 전시회엔 열정적인 솔라가 느

뉴시스



끼고 표현하는 색깔들을 만날 수 있다. 신보 관련 미공개 포토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 중이다.

'컬러스'는 솔라가 미니 1집 '용: 페이스(容: FACE)' 발매 이후 약 2년1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보다. 오는 30일 발매 예정이다.

박보람 측 " 명예훼손성 게시물 법적대응... 선처 없다"

가수 박보람(1994~2024·사진)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온라인에 가짜 뉴스가 퍼지자 소속사가 법적대응한다.

제나두엔터테인먼트는 14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고 박보람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명예훼손성 게시물 및 댓글이 부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보람은 데뷔 후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인해 악플에 시달려왔다. 그녀가 고인이 된 현재에도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중이다.

제나두엔터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를 접한 당사 및 유족들, 주변 지인들 또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든 허위와 억측성 영상물, 게시글은 즉각 내려주시 것을 요청드린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사는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장례 절차 후 엄중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보람은 지난 11일 경기 남양



주 소재 여성 지인의 집에서 다른 여성 2명과 술자리를 갖다 안방 화장실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지고 1시간여만에 숨을 거뒀다. 발견 당시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며,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에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퍼졌다. 박보람과 절친한 가수 김그림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AI 목소리로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넣고 가짜 뉴스 만드는 유튜브를 어떻게 조지하는 법 없나요? 떠난 사람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 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까지. 지인분들이 보낸 링크들 보는데 정말 피가 솟구친다. 적당히들 하라. 천벌받는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전날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됐다. 제나두엔터는 고인의 장례 절차와 사인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뉴시스